

광 야

1536. 봉쇄의 신비로운 광야는 우리 스승님께서 사셨던 거대한 광야의 신비스런 메아리입니다. 그 광야를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그분의 영혼과 나의 영혼, 그분의 삶과 나의 삶,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 안에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기도와 침묵의 심연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1537. “나는 영혼을 고독 속으로 데려가 거기서 마음에 속삭이리라.” 거기 바람 사이 바위 틈, 그 신비스런 동굴 안에 영혼을 집어넣으리라. 너무도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오직 신적 어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신비만이 감도는 그 동굴 안으로!

그 바위 틈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 침묵의 영역으로 데려가시어, 광야적인 고독, 죽음과 생명, 빛과 어둠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들로 그대를 감싸 주시도록 맡기십시오.

1538.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대는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까? 그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회피하고 떨쳐버리려 합니까? 그대는 불타는 산의 하느님을 위해 창조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태우는 불에서 얼굴을 돌립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대를 초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광야로 가지 않겠습니까?

1539. 어둠 속으로 들어가 모래 위에 앉으십시오. 햇빛은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으십시오. 수도원은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다. 교회도 사막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광야에서 일하시기를 좋아합니다. 포효하는 사막 한 가운데서, 고독의 혼돈 속에서, 침묵의 신비 속에서, 뻑뻑한 침묵의 밀림 속에서 그대의 삶을 새롭게 하여 가십니다. 인적조차 없이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땅! 그 분께서 홀로 거기 계시며 온통 그 땅을 차지하시고 쟁기질조차 못하게 하십니다. 불모의 땅에 심겨진 생명처럼 오직 그분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예'를 간절히 기다리며 거기 홀로 계십니다. 그대의 삶을 요구하시며 침묵으로 그대를 포위하십니다. 안팎으로 침묵하십시오... 신비스런 침묵을 지키십시오. 하느님은 광야의 하느님, 광야의 하느님은 침묵의 하느님이십니다.

1540. 그대가 광야 한가운데 울려 퍼지는 기쁨의 종탑이라면 그대의 광야는 가치 있고 세상에 무언가 전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침묵을 통해 하느님은 존재하시고 절대자이시며 그대는 하느님의 초월성을 알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더 잘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종이 묶여 있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언제, 누가 와서 치더라도 늘 "예, 하느님!" 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1541. 광야는 너무도 강한 일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하늘이 하느님의 정적으로, 전율하는 그분의 침묵으로 점령될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결로 직접 일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1542. 원합니까? 이는 더욱 지극한 성실과 기쁨,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바라 보지 않고 하느님과 대화 하는 영혼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찾습니다.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이들은 세상의 모습을 바꿉니다. 시나이 산의 모세가 기억납니까? 그의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환한 빛 뒤에 하느님께서 계셨습니다.

1543. 오! 그대가 두려워 떨 때마다 그리스도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진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는 그대가 떨고 있는 것이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저도 떨리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두려워 떨며 우리 보다 앞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떨리는 것이 당연한 하지요. 때때로 광야는 너무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야일 수록 더 그리스도적입니다. 광야 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 준비할까요? 세상에 하느님의 소식을 주기 위해 광야 깊숙이 까지 들어가 볼까요?

1544. 영원토록 내어주신 하느님은 영혼이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더 많은 것을 청하시는 사랑에 빠진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더한 믿음, 더한 비움, 더 큰 자유를 청하십니다. 그대의 응답은 그대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까지 드리는 사랑의 충만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느님만 남아 계실 때까지!

광야가 그대를 부릅니다. 그 신비로 그대를 감싸주기 위해... 그대는 응답했고 그대는 하루하루, 서서히 광야가 되어 갈 것입니다.

1545. 그대는 광야를 좋아합니까? 그 광야의 고통에 우리 생명이 떨어집니다. 거기서 밀알은 죽고, 죽으면서 생명을 줍니다. 광야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광야에서 모든 것을 만납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1546. 사막의 심장으로 들어 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깊숙이 들어 가십시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신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이르면 목적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것은 바로 하느님 자신입니다.

1547. 무한한 것에 자신의 삶을 고정시킨 사람들은 참으로 용감하게 광야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빛의 선구자들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을 밝히는 순결한 빛,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얻게 되는 생명의 빛을 밝히는 선구자들입니다.

1548. 영혼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모든 사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1549. 아직 더 짙고 깊은 하느님의 사막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이 현세의 사막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짙은 안개도 캄캄한 어둠 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신비스러운 어둠은 다만 하느님이 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으로 단순하고도 중대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은 죽음으로 엮어지며 그리고 바로 이 매일의 죽음에서 새로운 삶이 싹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때입니다.

1550. "사막의 바위" 속으로 들어가 작열하는 태양 아래 앉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빛 아래 앉으십시오. 그대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그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며 그대는 타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대의 검게 탄 피부는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비밀, 초월적인 신비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1551. 사막에서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변화된다 것을 생각만 해도 저는 황홀해집니다. 거기서는 모든 단어들이 깊은 신비를 지닙니다. 사막의 모든 시간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시들입니다.

1552. 광야의 이상을 살기 위해 더욱 섬세하고 철저한 자유가 요구됩니다. 참된 광야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이 사랑의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553. 광야의 먼지 바람은 입술을 바싹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까지 파고 들지 않는다면 진정한 광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존재의 생생한 심장부까지 정화시키는 참된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1554. 가끔 나는 우리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를 생각합니다. 그 희생제사가 완전하게 실현 되었는지, 우리 삶이 정말 번제물로 바쳐 졌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며 우리의 희생제사를 서

서히 준비하여 가십니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태20.22)

그리스도의 잔을 마셔야 할 시간입니다. 광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영혼이 용감하게 광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들어갈 줄 안다면 고통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혼인잔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영혼의 혼인잔치는 십자가의 황량한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1555. 그대의 특기는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눈길에 매료되어 눈썹조차 깜박하지 않는 감탄에 빠진 눈길! 그리고 이 감탄의 눈길이 자유로운 겸손, 활짝 열린 기쁨, 함께 나누는 사랑의 콘서트가 되어 사막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탄의 연주회를 생활로 옮기십시오..

1556. 사막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이유는 우리 사막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 많은 이름들과 형제들로, 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때때로 죽음까지 물고 옵니다. 그러나 오, 복된 사랑의 죽음이어!... 하느님은 피와 희생, 번제 제물로 붉게 물든 사막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희생과 그분의 희생을 합쳐 그분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면 어떨까요...! 이는 그분의 희생에 우리 희생이 용해되어 우리는 흡수되고 사랑의 깊은 신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 희생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 생명이 그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1557.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광야는 하느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영

혼의 상태입니다.

1558. 점점 더 강해지는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애덕을 통해 살아있는 광야로 들어 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외면해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다가오는 사랑의 거대한 명령입니다. 아,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막의 울부짖음 이여! 이 울부짖음이 꺼지게 할 수 없습니다.

1559. 우리는 점점 해방되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광야를 어지럽게 하는지!

하느님은 이 모든 것 사이로 지나시며 모든 벽과 담장을 헐어버리고 싶어하십니다.

모든 것이 헐벗은 산으로... 황량한 고원으로... 침묵의 신비로... 외로운 땅으로... 울부짖는 고독의 혼돈 상태로 남아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1560. 이제 우리 삶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광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적 요구의 시간에 진입하였습니다. 거기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심각한 방향 전환을,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가 치러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대의 몫은 그대 자신이 허물어 지는 것입니다. 세우면서 허물어트리는 것입니다! 그대의 사막을 예수님의 거대한 사막으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막, 새로운 신분... 우리의 새로운 인격입니다.

1561. 예, 사막은 가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의 신비가 간

직되어 있습니다. 그 황량한 모래 밭, 척박한 땅, 고독한 광야의 하늘아래 죽어 없어져 버릴 가치가 있습니다.

오직 이렇게 빛과 하느님으로 가득한, 순결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빛으로 모든 이에게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1562. 사막으로부터 모든 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로부터 목마른 모든 이에게 마실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대에게서 마시는 동안 그대는 목말라 죽을 수도 있겠지요.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1563. 나는 항상 가장 빛나는 이상, 감동 어린 모험을 그대와 함께 할 것을 꿈꾸어 왔습니다. 사막에서는 모든 것이 별거승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과 직면하게 되는 사막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모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엄청난 모험입니다.

1564. 광야는 하느님이 지나가시도록 피조물들이 자리를 내어드린 사랑의 상태입니다. 우리 삶이 오직 하느님의 발자취가 되기를...!

1565. 사막의 본질은 모든 면에서 내 '자아'가 죽는 데에 있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죽어야 하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생명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거룩하신 분께서 그대의 존재를 꿰뚫고 지나가시도록 그대는 죽어야 합니다.

그분 홀로 그대 존재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흡수해 가는 것입니다.

1566. 그대 안으로 들어가 사십시오. 그대의 삶이 끝없는 비움의 신비가 되게 하십시오. 때때로 포도밭을 망치고 들쭉셔놓는 여우 떼들이 있으니 깨어있으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 “저 여우들을 잡아 주세요.”(아가 2, 15)

1567. 그대의 사막을 지키십시오. 산 위의 사막, 빛나는 화산의 사막, 타버린 불꽃의 사막... 그대 사막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으십시오... 하느님이 그대 안에 심어 주신 철저한 성소의 신비 앞에 깨어있으십시오.

1568. 광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 그러나 구태여 장소가 필요하다면... 그대의 삶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불타는 그 사막을 포옹 하십시오... 그 불타는 땅을 끌어 안고 거기에 그대의 영혼을 던지십시오. 오직 하느님만이 이끄시고, 오직 그분의 목소리만이 들리는 그 광야의 카오스 안에 사십시오.

1569. 광야는 성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고동소리를 들으십시오. 성모님의 고동 소리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타는 그 성심의 고동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요!

하느님의 사막에 결코 지치지 마십시오. 그 사막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성모님의 마음과 만날 것입니다.

1570. 여러분은 그 산, 그 화산, 그 불타오르던 산이 기억납니까? 그것들은 단지 상징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말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분은 실제적인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 것을 번역한다면 “고독한 울부짖음”, “혈벗은 산” (신명 32,10) “아무도 일구지 않은 땅”(예레 2,6)이 될 것입니다.

1571. 하느님은 그대를 자유 안에 가두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느님께서 당신 손에 그대의 삶을 취하셨습니다. 이는 으르렁대는 사막의 소리입니다. 그분은 그대 존재의 숲을 꿰뚫고 지나시며 모두 다 베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불타버린 그대 영혼 깊은 곳에 오직 당신의 나무만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1572.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요구가 다가올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 그대의 삶이 하느님의 광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대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지나가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불을 지르기 위해 활활 타는 햇불을 들고 오십니다... “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려고 왔다”(루카 12,49)... 그대는 세상이고 그분은 불이십니다. “타버리십시오!”

1573. 거칠고 투박한 광야가 우리를 포위하며 다가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 보아서도 그 무엇에도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나와 그대의 모든 것이 오직 하느님의 것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1574. 가끔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 울려 퍼지는 사막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오, 광야! 광야는 그리스도로, 그분의 사랑과 신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고요와 선으로 점령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분의 힘,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비밀들이 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1575. 사막은 우리를 참으로 강하게 일치시킵니다! 사막의 하늘과 별들과 태양...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친히 일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되게 하십니다. 그대와 나는 똑 같은 염원과 갈망과 야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막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저의 모든 것을 지니고 간다면 그대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은밀한 것을 사막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막을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눈길과 사랑으로 사막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진 침묵으로 지상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1576 우리 사막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자아”와 피조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감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가죽채 벗겨지고 생으로 고통 받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비움을 받아주시고 미소 지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빈 자리에서 일하시며 전부를 원하십니다. 먼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 그대의 삶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대를 맡겨

드리십시오. 그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1577. 오직 비워진 영혼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에게서 나와 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대를 차지하실 때, 그대는 이미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빈자리는 세상을 창조하는 혁명가의 모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1578. 우리 수도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하느님의 불은 수도원이 붉게 타오르길 바라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불의 사막...

그대의 사막은 나의 사막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해방을 향해 단숨에 달려보지 않겠습니까?

1579. 자유로운 겸손, 겸손한 자유... 사막에 울려 퍼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들입니다.

참된 사막이 되기 위해서는 고랑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비워져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느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습니다.

1580. 신비는 먼 곳으로부터 옵니다. 베들레헴에도 사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대의 사랑으로 이 사막을 위로하고 따스하게 하십시오. 그는 그대의 가시밭길 여정에 위로와 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포효하는 사막의 소리를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욱 강합니다, 그분께서 함께 가십니다.

1581. 하느님의 광야에서 하느님의 기도방법을 배웁니다. 광야의 밤들은 과연 어떨까요? 또 광야의 침묵은 어떨까요?

1582, 안주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위로가 있거나 없거나(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 14) 광야에서, 황량한 별판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되고 신비스런 유배지여, 영혼의 사막이여...!

제 영혼의 비밀을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허공에 매달려 있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을 향해 날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심연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심연 위를...

1583. 광야는 참으로 거대합니다. 그 신비를 깨우치기 위해서 평생이 필요합니다. 그 풍요로움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1584. 하느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전부를 원하십니다. 배가 뒤틀리는 듯한 영혼의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아도 부르짖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뒤틀리네(예레 4,19)”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강한 시간입니다. 그분의 시간이기에 너무도 훌륭하고 우리의 시간이기에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의 전부를 장악하려 오시는 순간입니다. 그분께서 자유롭게 드나드시며 그대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방어하지도 말고 비명을 지르지도 마십시오. 영혼의 밑 바닥, 가장 깊은 심연까지 차지하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이미 다 드린 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위로를 찾아 뒤

를 돌아 설 길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그대의 위로이십니다. 더 많이 청하시고 요구하실수록 마음의 기쁨도 커질 것입니다.

1585. 광야의 모래 발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 밀밭이 됩니다.

모래 발이 젖으면 진흙 밭이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캄캄한 어둠을 비옥하게 만드셨습니다.

1586. 모래밭, 산, 광야, 황량한 들... 이는 장난이 아니라 위대한 모험입니다.

1587.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막의 거대한 유목민 대열 속에 우리 모두 함께 전진합니다. 그분을 향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갑니다.

모두가 함께 일치되어, 결코 떼어놓을 수 없이 일치되어 천상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1588. 광야 중의 광야는 하느님의 광야입니다. 이 사랑과 일치의 울창한 숲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가장 위대한 경기가 벌어지고 가장 위대한 모험이 실현됩니다.

이는 순결한 사랑과 자유의 모험이며 매일, 매일 죽어가는 완전한 포기의 모험입니다.

이 광야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실재들로 우리 광야를 건설해 보지 않으렵니까?

1589. 하느님께서 무언가 청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당연히 응답이

있어야겠지요. 아무도, 아무 것도 아끼지 않는 응답, 더 큰 포기를 향해 투신하는 응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가혹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 깊은 곳에 신비로운 비밀들이 쌓여있습니다. 오직 거기서만 참으로 위대하고 결정적인 단어, "하느님"이 충만하게 살아집니다.

1590. 제 영혼 안에 광야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을 함께 나누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의 대화를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한치도 그에게 양보해서는 안되고 단 한 순간도 그와 대화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나를 거스르고 우리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우리 시작합니다. 이는 낡은 것을 박차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르는 비상입니다.

1591. 점점 더 커지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광야의 심장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거기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신비가, 하느님화 되는 시간들이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지극한 고통들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닮게 하는 고통, 이 고통이 그대의 삶을 그분의 발치 앞에 서서히 부서트려 갈 것입니다.

거기 부서진 그대 안에서 그분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그대는 광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광야를 지나는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1592. 그대 영혼은 더욱 굳세어지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침묵과 생생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본질적인 것들이 모두 밖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생각에는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언어들은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 앞에 정중하게 굴복해야 합니다. 그 분은 모든 것을 요구하시며 당신의 포로를 온전히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에, 마음에, 생각에, 우리 삶 전체에 사막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신비로 가득 찬 하느님의 사막이 되어야 합니다.

1593. 사막에서 하느님은 잠잠하십니다. 하느님의 침묵을 듣는 데에 자신을 바치십시오.

1594. 광야는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무엇도 손에 남아있어서는 안됩니다. 영혼은 오직 하느님을 향해, 항상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은 그분 심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신비로운 실재를 꼭 붙들고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 생명을 지켜줄 힘도, 변화시킬 힘도 없으며 관심을 기울일 가치조차 없습니다.

1595. 광야가 총만하다면 하느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참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총만할 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느님으로 채우십시오.

1596. 모든 것이 새로운 색조를 띠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위로도 도망침도 없는 혈벗은 광야로 변화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유의 신비를 완전히 실현하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597. 철저함을 요구하는 외침이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을 밖으로 몰아내며 질풍 같이 달려옵니다. 오직 하느님... 하느님만...! 내어주시고 요구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비어지게 하시며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는 소름 끼치는 정화 작업을 이루어 내십니다.

1598. 하느님께서 그대 존재 안에 심어주신 진리와 충만, 사랑과 생명을 하느님의 투명함과 맑음으로 그대의 일상 생활 안에 반영시키십시오.

그대의 발이 닿는 광야 구석, 구석마다 교회로, 예수님으로, 하느님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충만함이 그대 안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1599. 사막의 여정을 지나는 그대의 삶은 수도원 성당의 지성소에 모셔진 성체의 신비와도 같습니다.

1600. 하느님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사랑의 풍요로움이어...! 이 영원한 신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실현하십니다. 그분의 신비로운 발자취 앞에, 그 신성한 입김에, 그 영원한 숨결에, 그분의 무한한 신비 앞에 감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사막으로 들어가 죽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영원한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1601. 절대자께서 그대와 약속하시고 그대를 기다리십니다. 거기에는 상대주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만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부와 무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전부와 무가 한데 어우러져 그대의 사막을 이루는 것입니다.

1602. 그대 사막의 차원을 높이고 생명과 사랑,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 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똑 같이 되는 것입니다.

1603. 새로운 사막이 그대를 기다립니다. 이는 침묵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독수리의 등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대의 사막이 도시의 요란한 소음과 현란한 색깔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 지키십시오.

1604. 사막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목소리와 영원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신적 계획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막의 모든 자리는 하느님께서 차지하십니다.

1605. 부푼 희망을 안고 그러나 현실 감각을 잃지 않은 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는 "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말하기 시작할 때 이미 나의 사막은 사막이 되기를 그쳐버립니다. 하느님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사막을 당신 홀로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의 "나"가 주의를 끌며 고개를 쳐들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신비가 약화되고 우리의 사막은 싸구려 공연장으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1606. 그대는 불림 받았습시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들려오는 목소리가 여전히 속삭입니다. 오라, 침묵의 심연으로... 깊은 광야의 비밀 안으로... 심오한 비밀의 소리를 들으러 오라! 오라 그리고 이제는 다른 그 어떤 곳에도 그대의 눈길을 돌리지 말라.

1607. 사막의 여정에는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숨 막히게 하는 모래 바람과 타는 듯한 더위와 영혼을 가르는 추위...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한 없는 정적의 시간이... 순례자의 위대함은 계속하여 전진하는 데 있습니다.

1608. 아마 그대의 사막에 재빠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는 밤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막의 순례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 식수를 지어 날라야 하고, 밤에는 덮을 것을, 근심하는 이에게는 미소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가벼워져야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짐은 모두 벗어 놓아야 합니다.

1609. 사막은 자신 잇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너무 재고 자꾸 자신을 돌아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바라보니까? 반면에 나와 함께 가는 이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610. 광야는 우리의 삶을 분발케 하고, 굳세게 하며, 태양 아래 검게 타 들어 가게 하고, 단련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

의 혈벗은 산을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거기서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말씀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단련시키며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저 날카로운 쌍날칼에 꿰 뚫리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1611. 광야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강인하게 만들고 태양빛으로 타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의 벌거숭이 산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거기서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해방하고 치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저 날카로운 쌍날칼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1612. 두려워 말고 올라 가십시오. 침묵의 포효 소리는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침묵과 고독과 생생한 기도를 포로로 사로 잡기 위해 투신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께 사로 잡히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그대 연약함에 힘이 되어 주십니다.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1613. 우리가 전진하는 사막은 생각과 느낌과 삶에서 철저한 요구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며 동시에 오아시스의 시냇물로 인도합니다.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고 심오한 것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화의 채를 거쳐야만 합니다.

1614. 사막은 하느님의 고요입니다. 이 고요함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남에게 전해 줄 수 없습니다.

1615. 사막은 은밀한 소유입니다. 자유는 사막의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그 신비스러운 비밀들은 쟁취하여 보십시오.

1616. 이 새로운 달을 그대에게 헌정합니다. 그대에게는 특별한 달이 되겠지요. 새 수도원 창립을 위해 떠나야 하니까요. 감주어진 신비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지의 땅을 향하여 떠나가는 길에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 새 희망의 길, 어둡고 캄캄한 암흑의 길, 사막의 길에 인도자가 계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신비에 도달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1617. 닳이 올려졌습니다. 순풍이 불어오고 항해를 방해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 하느님의 신비를 향해 나아갑시다. 하느님께서서는 한 밤중에 당신 아드님을 이집트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하는 아드님의 연장입니다.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신비스런 밀실 안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자신을 맡겨 드리십시오. 사랑으로 새겨진 자유와 충만함과 생명이 있는 그 곳으로...

1619. 사막에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 사막의 주민들은 그 시내서 살며 그물을 마십니다. "그들은 시내에 숨어 살며 그 시내에서 마셨습니다"(열왕 17, 3-5).

성체로부터 흘러 나오는 그 시냇물은, 그를 마시는 영혼 안에 성모님의 맛을 강하게 남겨놓습니다.

1619. 저녁 노을의 장관도 새벽 여명의 아름다움도 하느님의 바위틈에 숨어 사는 영혼의 아름다움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대 자신의 사막을 향해 전진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대의 바위요 방패요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그대 여왕이신 성모님께서도 그대를 사랑의 왕국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1620. 그대 부재의 사막에서 그대를 잃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사막에서 그대를 만나십시오.

1621. 무시 무시한 광야의 고독이 포효하며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막의 땅에 굳세게 발을 디디고 힘차게 돌진하며 그 거대한 공간을 횡단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사막의 전주곡입니다.

1622.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의 작업장을 사막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침묵을 가꾸고, 깊은 사랑을 심으며, 평화와 고요와 기쁨과 열정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신성한 음악으로, 하느님으로 그를 채우십시오. 오직 이렇게 참된 사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623. 그대 안에서도 으르렁대는 사막의 소리가 들려 올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사막에 대한 그대의 개념이 바뀌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의 행동과 말씨와 움직임들, 끈임 없이 걱정하는 모습들로는 사막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행위의 단계에서 존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부산하면 사막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기도, 침묵하는 기도, 고요함과 평화로움... 무엇보다 사막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밖에서는 사막을 살 수 없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1624. 저는 제 영혼의 창문에 비친 빛을 보았습니다. 그 것은 광야를... 생생한 죽음을... 당신의 전리품을 차지하시려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그 계시의 목소리는 오직 험벗은 산에서, 한적한 시냇가에서, 먼지와 모래뿐인 광야에서만 들려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영원하신 그분의 뜻을 알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붉게 타오르는 영원보다 더 강한 사랑의 소리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깊이 새겨들었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것은 살아있는 그 바위 위에, 험벗고 위로조차 없는 그 황량한 벌판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광야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느님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없어집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삶은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 빈 자리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심으십니다.

